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무재해로 우뚝선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



21C 서해안 시대에 우뚝서 있는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김문하 처장)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여 만평의 광활한 부지위에 영종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약 240여명의 정예 인원으로 시설 용량 180만KW(가스터빈 8대 120만KW, 증기터빈 8대 60만KW)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한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한국 서부발전주식회사”로 다시 태어난 이 회사는 『지식경영에의 도전, 원가 절감의 생활화 및 예측 장비의 정착』을 사업소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김문하 처장 이하 모든 임직원 은

“경쟁력을 갖춘 일류 사업소 구현”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993년 11월에 미국의 유명한 전력관계 잡지사(EPI)로부터 “올해의 발전소 상”을 수상하기도 한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는 2000년도 한전내부 “경영실적평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무재해 3배 목표달성을 하고, 현재 5배 목표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 주변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장학사업과 교육기자재 보급 및 학생들의 중식을 제공하는 등 21C 최우수 기업으로써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최우수 기업으로 거듭나게한 밑거름 중 하나는 우수한 안전활동이다.

전자 전광판을 이용한 안전의식 고취

기존의 안전의식 홍보용 무재해 현수막이나 기록판 대신 입체, 영상화한 LED Sign Board를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여 무재해 사업장 운영을 위한 안전의식 확산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발전처 최초로 시도한 전자 전광판은 이규선 안전관리자가 창안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쉽게

▲ 이규선 안전관리자



▲ 현장 안전 순찰

내용을 편집할 수 있어 안전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의식전환 및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 다른 사무소로까지 확산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이 밖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실무능력 향상 등의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능동적인 안전활동을 유도할 수 있어 무재해 3배 목표달성의 바탕이 되었다.

3 Violation Out 제도 운영


안전장구 미착용, 불안정한 작업 동작, 화기사용 절차 미준수 및 안전조치 미흡 등 불안전행위자나 구내 교통질서 위반자에게는 안전지적서를 발급한다. 안전지적을 3회 이상 받은 자는 작업투입금지 및 일정기간 발전처 출입을 제한하며, 안전지적 대상자의 행동 내용 및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정기적으로 처장에게 보고 하고, 상습위반자는 명단을 사내 공개하는 등 안전 수칙 준수 동기부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조기 정착을 위해 포켓용 코팅지를 전 직원에게 지급, 항상 숙지하여 기본수칙이 생활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직 간부로 구성된 안전주변 활동제도는 주단위로 운영하는 제도로 사업소내 순찰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한다.

이상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 소개하였지만, 김문하 처장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모든 안전활동의 결과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꼼꼼이 챙기는 것과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볼 때 역시 최우수기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난다.



▲ 안전회의

올 여름은 길고 지루하며, 다른 어느때보다 더운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무재해 5배 목표달성을 위해 한치의 불안요소도 용납하지 않는 이 곳 발전처는 세계 최고의 안전과 최고의 품질로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갈 것으로 확신 한다. 

(취재 최 종 덕)

